



부직하계 힘차게 ...

의망, 농촌, 여기있소

김대표는 “이와 함께 조만간 시육무수를 2천여마리로 늘려 규모화를 통해 소매가격을 내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”면서 “올해는 죽암농장이 제 2의 도약을 하는 원년이 될 것”이라고 환하게 웃었다.

/journal@kwangju.co.kr

인 6~12개월 된 황소들이 들녘을 힘차게 누
비고 있다. 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INSIDE	15	한복 화장	
12	성남 병원의료국, 교통안전	16~17	남·원정대
13	대풍이, 운세	18	설 극장가
14	설음사극연상	20~21	설 TV 프로그램